

# 목포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 활성화 '견인'

### 환급행사 지원 시장 전라권 10곳 중 5곳... '최다 선정' 16일부터 오는 6월까지 수산물 금액 최대 30% 환급

목포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5개 시장이 선정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적극 참여, 전남·전북을 포함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지원 시장에 최다 선정돼 전통 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환급 행사에서는 관내 5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시는 이달 30일과 31일 개최되는 '유달산 봄축제'와 5월 14일부터 열리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게 됐다. 환급 행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월 1회 주말 특별전으로 운영된다. 주말 특별전은 4개월간 중앙식료시장·종합수산물시장 3회, 자유시장·동부시장·청호시장에서 각 2회 운영된다. 월 별로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동부시장, 자유시장, 종합수산물시장에서 진행되고, 4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자유시장, 청호시장, 중앙식료시장에서 운영한다.

5월 4일부터 8일까지는 동부시장, 종합수산물시장, 중앙식료시장, 6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청호시장, 종합수산물시장, 중앙식료시장에서 열린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며, 행사 기간 국내산 수

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3만4천원~6만7천원의 범위 내에서 구매할 시에는 1만원을, 6만8천원 이상은 최대 1인 2만원까지 환급 받는다.

또한 시는 축제·체전 대비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서비스 개선'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유인을 위한 문화 행사, 화장실, 출입문 등 장보기환경개선 시설을 긴급 정비했다.

황성용 목포시 농업정책과장은 "2024년 상반기 주말 특별전 등 행사를 적극 홍보해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반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선정된 전남·전북 10개의 시장 중 5곳이 목포 전통시장이다. /목포=정해선기자



바탕물 목포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 해남군, 합계출산율 1.35명...4년 만에 반등

### 전년비 0.31명 ↑ ...전남서 3위·전국서 6위

해남군이 합계출산율 1.35명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군의 합계출산율 증가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지난해 군 합계출산율은 1.35명을 기록, 전년대비 0.31명이 늘었다. 이는 전남 3위, 전국에서는 6위의 기록이다.

전체 출생아 수도 전년 216명에서 259명으로 43명이 증가했다.

해남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군 조성을 위해 건강한 임신부터, 행복한 출산까지 촘촘한 출산 정책을 적극 펼쳐오고 있다.

올해도 신규 사업으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시행하고,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 기존 대상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 출생아로 확대해 지원 폭을 넓히

고 있다.

특히 군은 전남도와 '출생수당'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매달 20만원의 출생 수당을 18년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군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소식은 반기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올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다양화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영광군 '영광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총 7개 유관기관 참여...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영광군은 10일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영광형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영광형 통합돌봄사업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리 연계로 영광형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해 군민에게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강종만 군수는 "영광 군민의 복지를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마음을 모으게 돼 뜻 깊고 감사하다"며 "군이 돌봄 분야에 있어 한층 더 도약해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나주시, 맞춤형 자세 '직장인 운동 프로그램' 호응

### 5개월 과정...개인별 증상에 따른 운동법 제시

나주시는 10일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직장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올(ALL)바른자세'(사진)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씩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부적절한 자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목,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부위에 통증과 이상 감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에 노출되기 쉽지만, 운동 시간을 내기 힘들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는 프로그램 전·중·후별로 참여자의 전신자세 측정과 발 형태·인바디

검사를 실시해 개인별 증상에 따른 맞춤형 운동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운동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해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내 몸에 걸맞는 운동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며 "무엇보다 평상시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동열 나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 후, 개선 점을 보완해 오는 7월 상반기에 15명 가량의 참여자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061-339-4757)에 문의하거나 나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나주=정종환기자



## 무안군, 전국 두 번째 규모 지적재조사 추진

### 9억2천만원 확보...4개지구 4천827필지

무안군은 10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비 약 9억2천만원을 확보해 무안신학1·청계청수1·현경평성2·해제장매지구 등 4개 지구 4천827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중이에 구획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200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올해 군이 추진하는 4천827필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업량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9개 마을 2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별 선정 배경

·목적, 사업절차·경계 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 방법,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산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불합치가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22개 지구, 1만7천421필지를 완료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사업량을 확보하고 15개 지구, 1만7천779필지를 진행하고 있다. /무안=김성호기자



## 신안 낙도 '이·미용 사업' 추진

### 12개 읍면 27개 낙도 대상...이·미용 서비스 제공

신안군복지재단 낙도 지원센터는 10일 "신안군의 12개 읍면 27개 낙도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찾아가는 낙도 이·미용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의 '찾아가는 낙도 이·미용 사업'(사진)은 복지서비스로 10년 이상의 미용 경력에 있는 전문 미용사가 낙도 별 연 2-3회 이상 방문해 정기적인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이·미용사 모집과 낙도 지원센터 개소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9명의 미용사가 주민 1

천25명에게 커트, 염색, 파마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거동 불편 어르신들과 장애인에게는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신안군복지재단 낙도 지원센터 관계자는 "말게는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들어가 하룻밤을 자고 나와야 하는 거제도·만재도 방문은 어려움이 많지만, 다음 방문일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생각하며 미용사 모집과 일정 조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신안=양홍기자



## 강진군, 첫 '백련사 동백축제' 성료

### 2만2천명 방문...9억5천만원 지역경제 파급 효과

강진군이 올해 첫 개최한 백련사 동백축제를 열흘 동안 2만2천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흘간 백련사 일원에서 개최한 제1회 백련사 동백축제는 2만2천여명이 방문하며 약 9억5천만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장에는 사진 인화 서비스, 탁본 체험 등 백련사에서 주관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여행 콘텐츠를 선사했다는 평이다.

동백나무숲은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를 저술했던 단산초당과 백련사를 접하고 있는 천연기념물로, 1천500그루의 동백나무와 만개한 동백꽃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특히 관광객들이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기념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 포토존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다산의 차맛은 어떨까?'라는 다도 체험을 비롯한 체험형 템플스테이는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서 심신을 치유하며 안정을 되찾아주는 프로그램으

로, 행사 기간 동안 모든 예약이 마감되며 인기를 실감했다.

백련사 템플스테이는 분주함과 복잡함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요하고 깊이 있는 명상·휴식을 선사해 MZ세대를 포함한 도시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윤순철 도암발전협의회장은 "열흘간 축제장을 찾아준 많은 관광객·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련사 동백나무숲은 지난 1962년 12월 7일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 이곳의 동백은 토종 품종으로 겨울을 이겨내고 1월부터 개화해 3월~4월 사이에 만개한다. /강진=정영록기자